

# 향신료, 근대를 열다

저자: 남종국

소속: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

# 신항로 개척의 역사적 순간

## 2 신항로 개척



### 생각해 볼까?

험난한 항해 끝에 마침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한 바스쿠 다 가마 일행이 현지 지배자와 대화하는 장면이다. 통역을 담당했던 이슬람 상인은 인도양 무역에서 기득권이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였다.

질문에 대한 바스쿠 다 가마 일행의 답은 무엇이었을까?

# 아시아에 대한 환상

- 아시아에 대한 동경: 아시아로의 탐험 여행을 떠나게 만듦
- 유럽 역사 발전의 동인: 근대 유럽 형성에 지대한 기여
- Marjorie Reeves, *The influence of prophecy in the Later Middle Ages* (Oxford, 1969).  
<The dreams of human being are part of their history and explain many of their actions.>

## 유럽 역사의 시대 구분

- 고대(Antiquity): --- 서로마 제국의 멸망(476)
- 중세(Middle Ages): 서로마 제국의 멸망 – 동로마 제국의 멸망(1453년)  
or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(1492)
- 근대(Modern): --- 제1차 세계대전 이전(1914년)
- 현대(Contemporary): 제1차 대전 이후

# 목차



1. 중세 말 유럽에서의 향신료
2. 향신료의 용도
3. 아시아에 대한 환상과 향신료
4. 향신료에 대한 환상
5. 향신료 무역

# 1. 중세 말 유럽에서의 향신료

- 향신료를 지칭하는 유럽어: spices(영어), spezie(이탈리아어), epices(불어), especia(에스파냐어), spezerei(독일어)
- 개념 정의: 식물성 원료에서 얻는 강한 냄새가 나는 여러 종류의 방향물질로 흔히 양념으로 쓰이고 향기나 저장성 덕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함.

## 중세 향신료

- 향신료의 의미 시대별로 달라짐.
- 향신료의 어원적 기원: 라틴어 species.
- Species의 원래의 의미: 땅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, 구체적으로 물건 또는 화폐.
- 중세 향신료: 페골로티의 상업 안내서에 나오는 총 288가지(중복을 제외하면 193)종류의 향신료.
  1. 의학재료(104개=53%)
  2. 양념류와 식품(38개=20%)
  3. 산업원료(42개=22%)
  4. 정체확인 불가(9개=5%)



## 동방산 향신료

- 후추목과(piperaceae): 둥근 후추, 긴 후추, 흰 후추, 검은 후추
- 생강과: 생강(두 종류의 인도 생강과 메카 생강), 갈랑가(galanga), 카르다몸(cardamom), 제도아리(Zedoary), 심황(turmeric)
- 계피과: 계피, 육계, 육계 꽃
- 고가 향신료: 육두구(씨), 마이스(육두구 껍질 말린 것), 정향(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따서 말린 향신료)



## 대표적인 동방산 향신료

- 후추: 동방산 향신료 전체 수입량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
- 생강: 20% 정도
- 계피:

## 2. 향신료의 용도

- 음식재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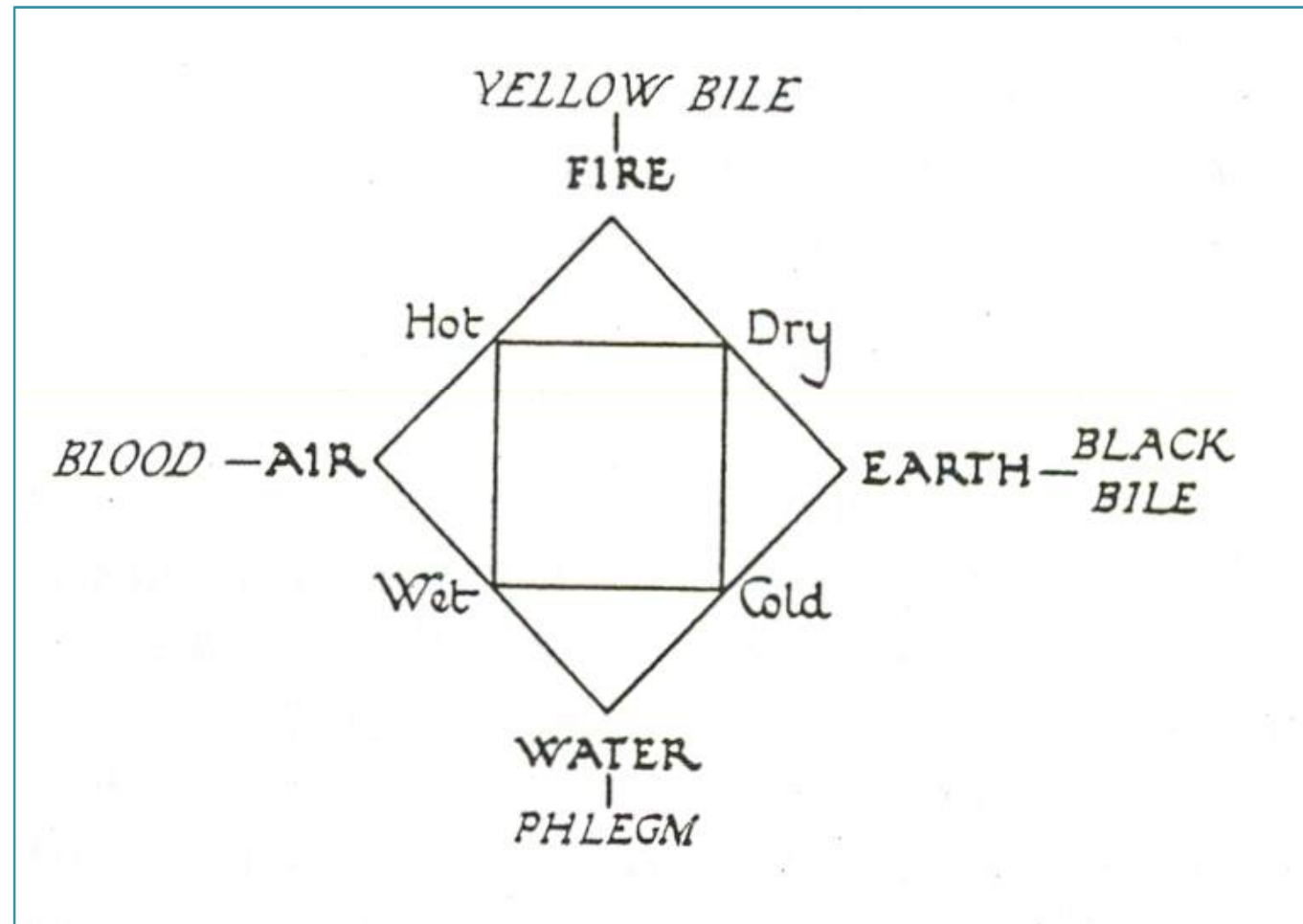
1. 향신료에 대한 오해: 고기가 부패하는 것은 막거나 이미 상하기 시작한 고기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용.
2. 요리책: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향신료가 들어감.
3. 구체적인 쓰임새: 소스, 식후에 먹는 과자, 설탕, 잼, 푸딩을 만드는 재료, 향신료를 가미한 포도주

# 향신료의 용도

- 약재

1. 중세의 의학체계: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가 체계화시킨 체액 이론
2. 몸의 구성: 4가지 체액(피=뜨겁고 습함, 황색 담즙=뜨겁고 건조, 검은색 담즙=차고 건조, 담=차고 습함)
3. 몸과 마찬가지로 식물과 음식도 고유한 성질을 가짐
4. 건강: 체액의 균형 상태. 향신료의 뜨겁고 건조한 성질이 고기의 차고 습한 성질을 중화시킴

# 4가지 원소와 4가지 체액의 상관도



# 체액이 체질이나 성격을 결정



- Sanguine(피): 쾌활하고 낙천적
- Phlegmatic: 차고 냉정하고 침착한
- Choleric(황색담즙): 화를 잘 내고 격한 성격
- Melancholic(검은색담즙): melan과 khole은 그리스어로 각각 검은색과 담즙

## 향신료의 성질

- 후추: hot to the beginning of the fourth degree and dry to the middle of the fourth.
- 생강: hot to the third degree and moist to the first.
- 계피: hot in the third degree and dry in the second.



# 1348년 흑사병과 의학 처방

-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명
- 파리 의학부의 소견
- 원인: 1345년 3월 목성, 토성과 화성이 물병자리(황경)에서 합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역병을 발생시키는 사악한 공기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오염된 공기가 전염병의 직접적인 원인



## 파리 의학부의 처방

- 우선 남쪽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나쁘고 사악한 공기를 피하고 향신료나 향이 나는 나무를 태워 그 연기로 나쁜 공기를 없앨 것을 권했다.
- 고기: 육계와 계피, 포도주와 식초를 많이 넣고 끓여서 먹기
- 소스: 육계, 계피, 생강, 정향 등의 향신료 사용
- 사혈: 필요할 경우 주기적으로 몸에서 피를 빼는 사혈 요법 시행
- 용연향 주머니(pomme d'ambre): 향낭 주머니 안에는 일반적으로 후추, 생강, 계피, 정향, 카르다몸, 갈링가, 심황 등 대부분의 아시아 향신료를 넣도록 했다.
- 테리아카 처방: 약의 주성분도 향신료

## 수도원, 초기의 병원과 처방

- 불면증: 후추, 계피와 허브를 섞어 만든 약
- 두개골 통증: 달팽이를 으깨어 후추에 섞어 만든 약
- 신장이 아플 때: 후추를 넣은 포도주
- 두통에는 정향, 계피, 알로에와 라벤더를 처방
- 나이든 수사가 아플 경우: 병 초기에는 주로 향신료를 처방했고, 나아갈 무렵 다시 향신료를 원기회복제로 사용

## 후추, 약방의 감초

- 1세기 - 10세기 의학 서적 분석
- 2만 8천 건의 처방
- 후추: 1705회 언급

### 3. 아시아에 대한 환상과 향신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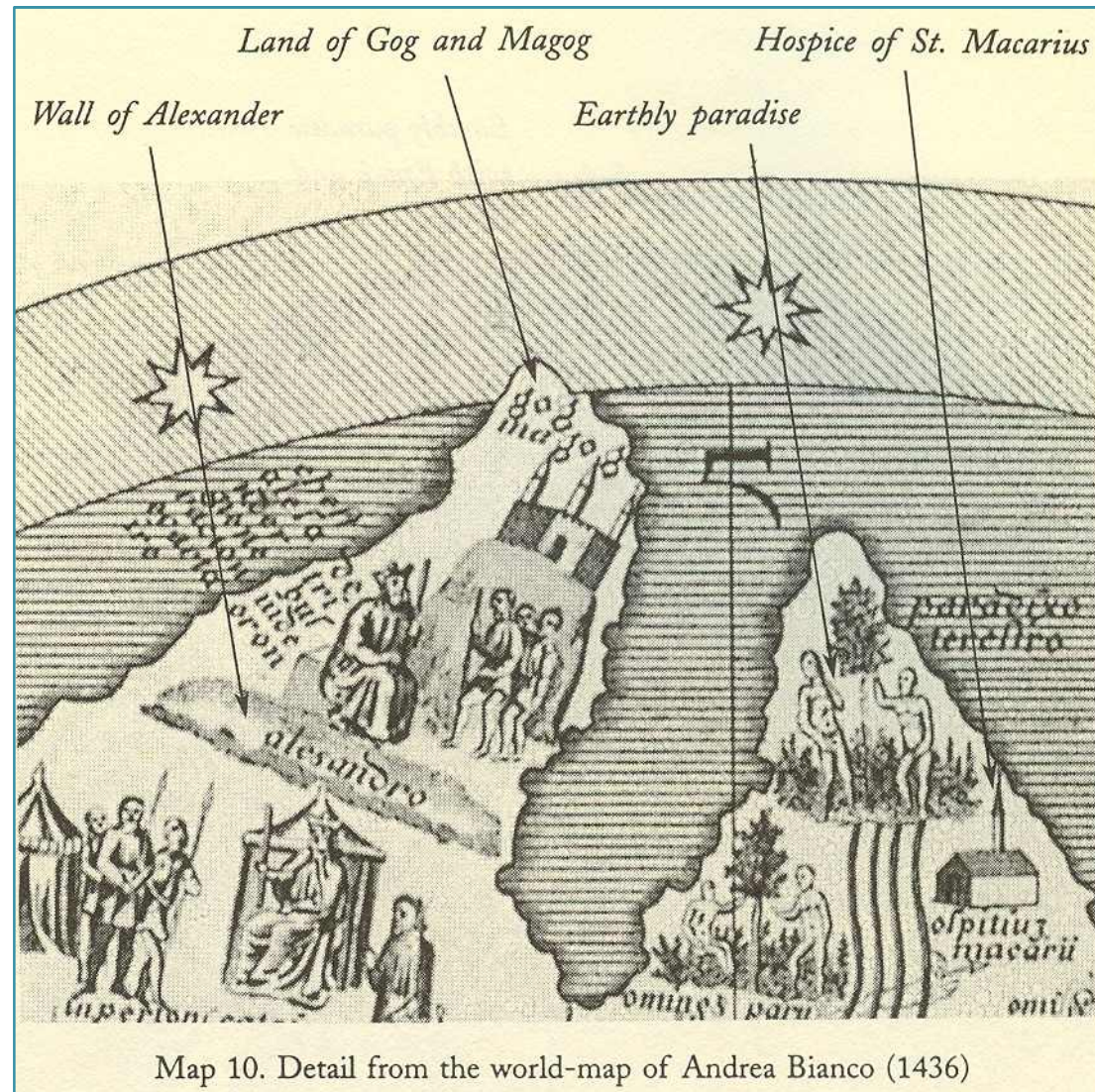
- 지상낙원에 대한 믿음
-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전설
- 성 도마의 전설
- 사제 요한의 전설
- 향신료에 대한 환상

##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전설

- 알렉산더 대왕의 장벽: 6세기 경 [알렉산더 로먼스] 라는 문학 작품 덕분에 중세 인기있는 주제가 됨
- 곱(Gog)과 마곱(Magog): 알렉산더는 코카서스 산에 장벽을 쌓음으로써 장벽 너머 있는 야벳의 후손인 거인 괴물(Gog and Magog)을 가두어 둔다
- 최후의 심판과 거인 괴물의 도래: 최후의 심판일에 이들이 인간 세상으로 나올 것임



# 알렉산더 장벽



## 성 도마의 전설

- 사도 도마의 인도 복음 임무: 예수 사후 인도 복음 전파 임무를 부여 받음
- 1. 인도에서 복음 전파: 72 년경 바라문 교도들에 의하여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며 인도 마라폴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.
- 2. 기독교 공동체 건설과 존속
- 3. 사도 축일에 기적이 일어남



## 사제 요한의 편지

- 사제 요한은 부, 덕과 권력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며 72명의 왕들이 공납을 바침
- 요한 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가난한 기독교 인들을 보호
- 왕국은 세 개의 인도를 포괄하며 성 도마의 유해가 묻힌 극동에서부터 바벨 탑 근처에 있는 바빌론 사막까지 뻗어 있음
- 진귀한 동식물들과 값비싼 것들로 넘쳐남
-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따라서 보석과 향신료가 사제 요한 왕국으로 흘러 들어옴
- 요한 왕국에는 후추 숲이 있는데 그곳에는 모든 향기를 발산하는 접음의 샘이 있고 이 샘의 물은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새벽 공복에 이 물을 세 번 마시면 이후 어떤 병도 걸리지 않으며 영원히 젊게 살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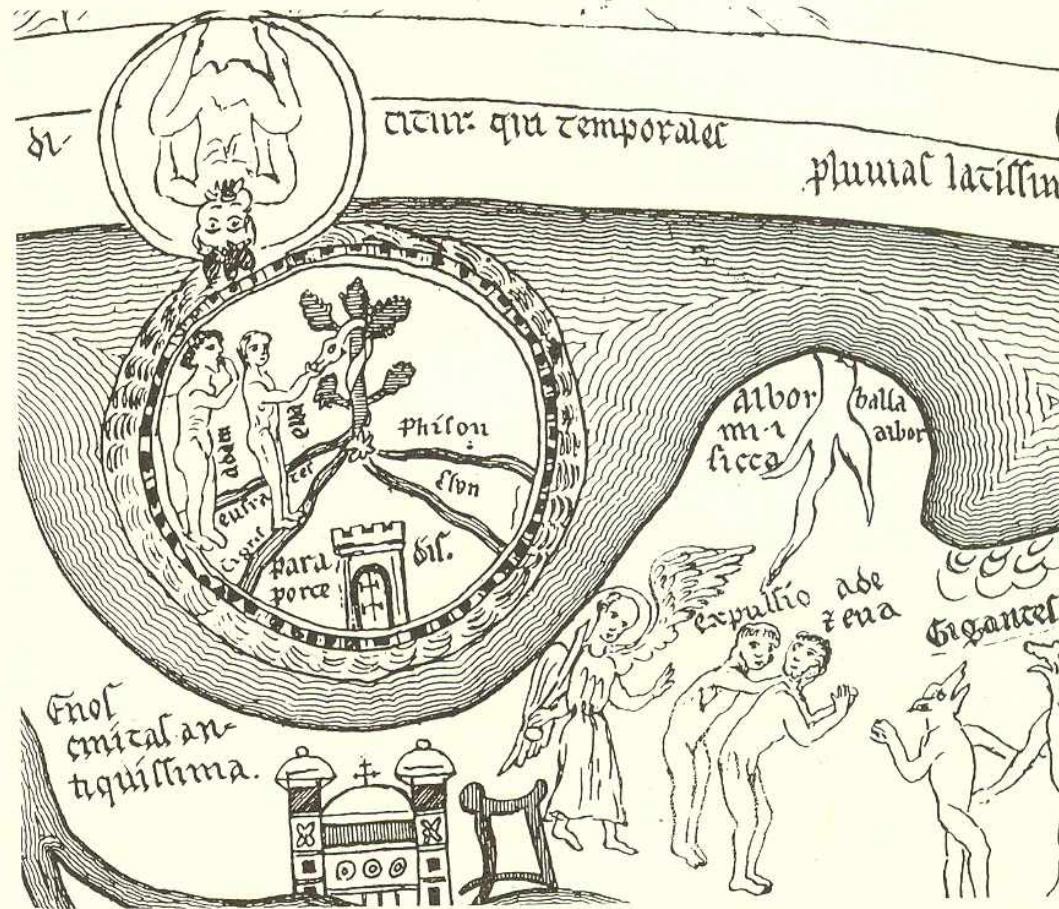
## 지상낙원(Paradise)에 관한 믿음

- 지상낙원은 지구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땅
- 지상낙원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
- 지상낙원 가까이에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wonder land가 있음
- 지상낙원으로부터 발원하는 4개의 강: Phison(간즈스 강으로 생각), Gihon(나일 강으로 생각), Tigris, Euphrates

# 지상낙원으로 부터 발원하는 4개의 강

THE EARTHLY PARADISE AND MEDIEVAL GEOGRAPHY

63



Map 7. Detail from the world-map belonging to the Cathedral of Hereford

## 4. 향신료에 대한 환상

- 뱀과 향신료
-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향신료
- 사제 요한 왕국에서 자람
- 신성한 효험을 가짐
- 지상낙원의 열매(graine de paradis): 지상 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통해 보석과 향신료 등이 인간세계에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향신료를 이렇게 부름.

## 향신료에 대한 환상: 뱀

- 뱀 이야기: 7세기 초엽 이시도루스의 어원학.

<후추 나무는 인도에서 자라는데 카우 카스 산의 돌 틈에서 흔히 볼 수 있다. 뱀들이 후추나무가 있는 숲을 지키고 있다.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후추가 익으면 불을 질러서 뱀을 쫓아내고, 그렇게 하면 불에 칸 검은 색 후추가 만들어진다>



# 향신료에 대한 환상: 지상낙원

- 지상낙원로부터 발원하는 4개의 강을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흘러나온다
  - 향신료는 지상낙원과 가까운 곳에서 자란다
1. 5세기 중엽 그리스 출신의 교부 필로스토르기우스: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정향나무가 피손 강 주변에서 자람
  2. 12세기 주앵빌: 지상낙원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바람에 의해 나일 강을 따라 세상에 흘러나오며 이집트 사람들은 그물을 쳐서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강, 대황근, 알로에와 육계와 같은 향신료를 얻음
  3. 14세기 맨드빌의 여행기: 나일 강은 귀한 보석과 알로에 우드를 지상낙원으로부터 가져온다
  4. 14세기 마리놀리: 보석과 알로에우드가 지상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온다



지상낙원의  
로부터  
흘러나오는  
알로에우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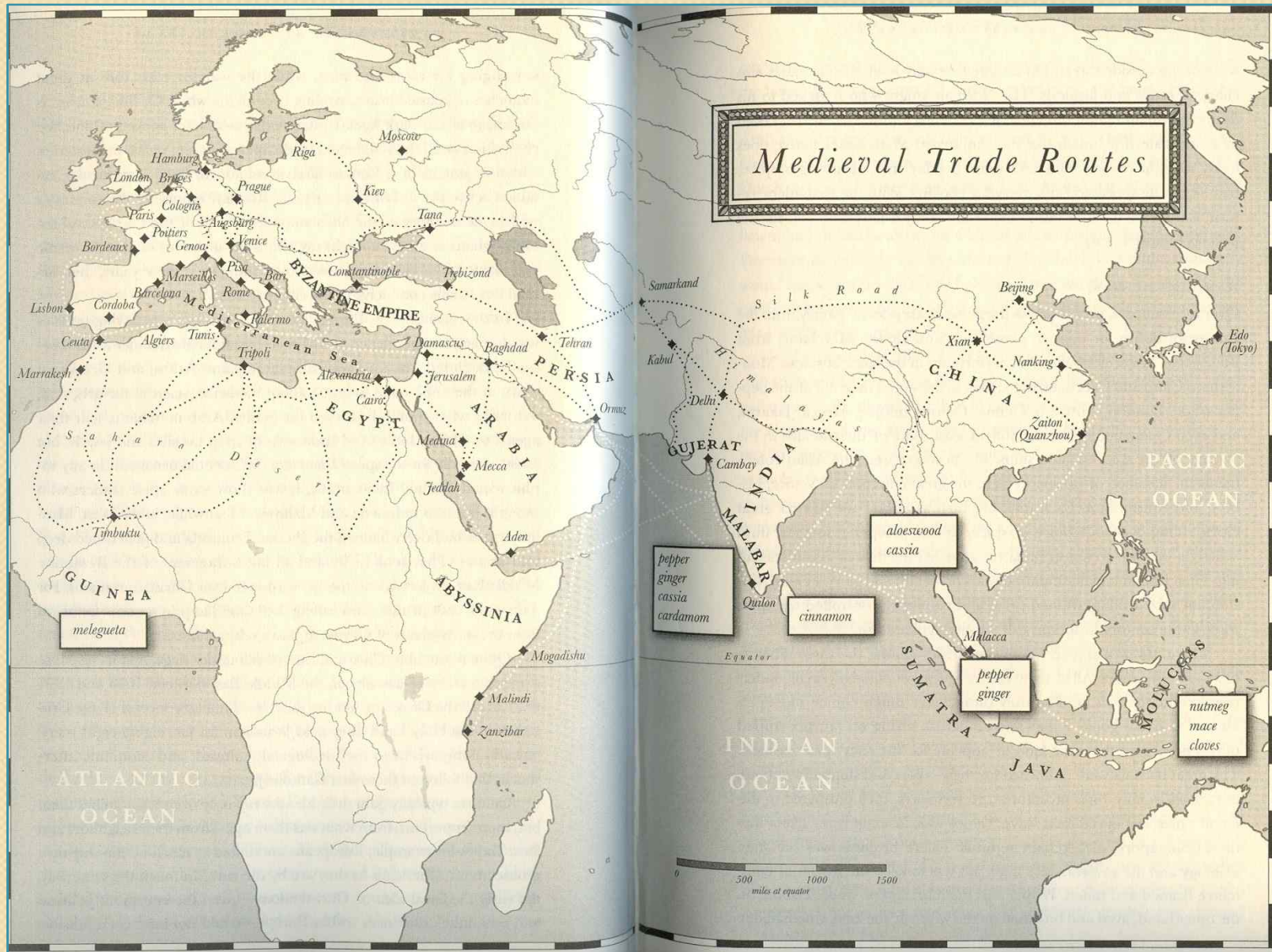


# 향신료에 대한 환상: 불사의 명약

-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효능을 지님: 지상낙원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
  1. 불사조의 먹이 육계: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불사조 등지에 있는 먹이가 바로 육계, 육계 덕분에 불사조는 부활
  2. 중세의 만병통치약 테리아카(theriaca): 주 성분이 향신료. 변비, 고열, 흑사병 등 다양한 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
  3. 지상낙원의 열매(graine de paradis): 지상낙원에서 흘러나온다고 믿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짐.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일화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께서 식도가 잘린 작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입에 넣어주신 기적의 약이 바로 이 향신료.

## 5. 향신료 무역

- 3가지 교역로
- 북방 노선: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을 가로질러 흑해와 연결
- 중앙 노선(신바트의 길): 페르시아 만 – 바그다드-시리아 항구(베이루트와 연결)
- 남방 노선: 인도양 – 홍해- 알렉산드리아와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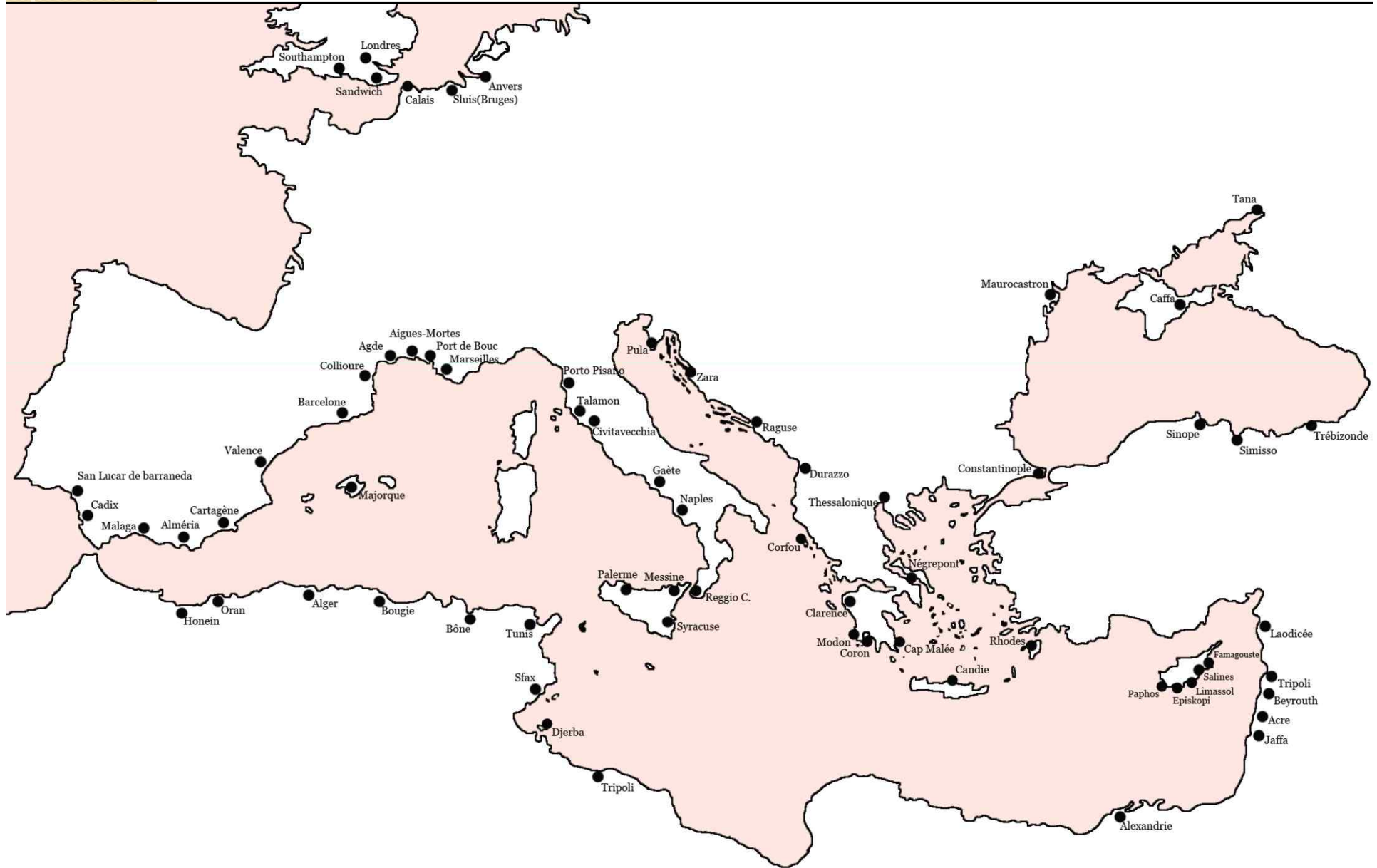


## 베네치아,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다

-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
- 갤리 상선단 운영
- 맘룩 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



## 지중해의 주요 섬들: 중세 말 베네치아 정기 선단 기항지



## 갤리 상선의 도입

갤리: 그리스어로 빠른 짐승을 의미.

갤리 상선: galere da mercato.

도입 시기와 도시: 13세기 말 베네치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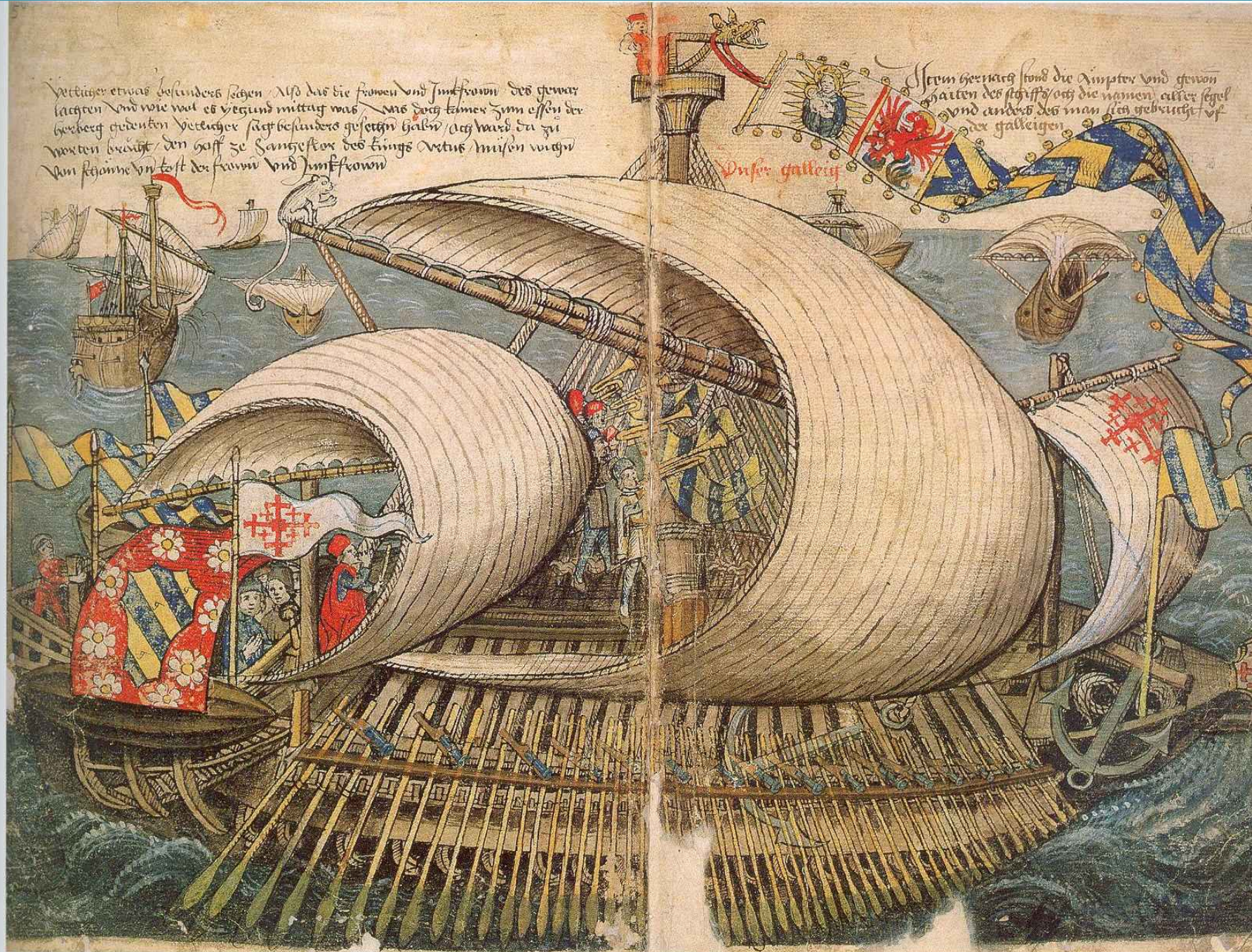
용도: 기존의 전함으로 사용되었던 경 갤리선에 수송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상선용으로 개조한 것.

# 베네치아 갤리 상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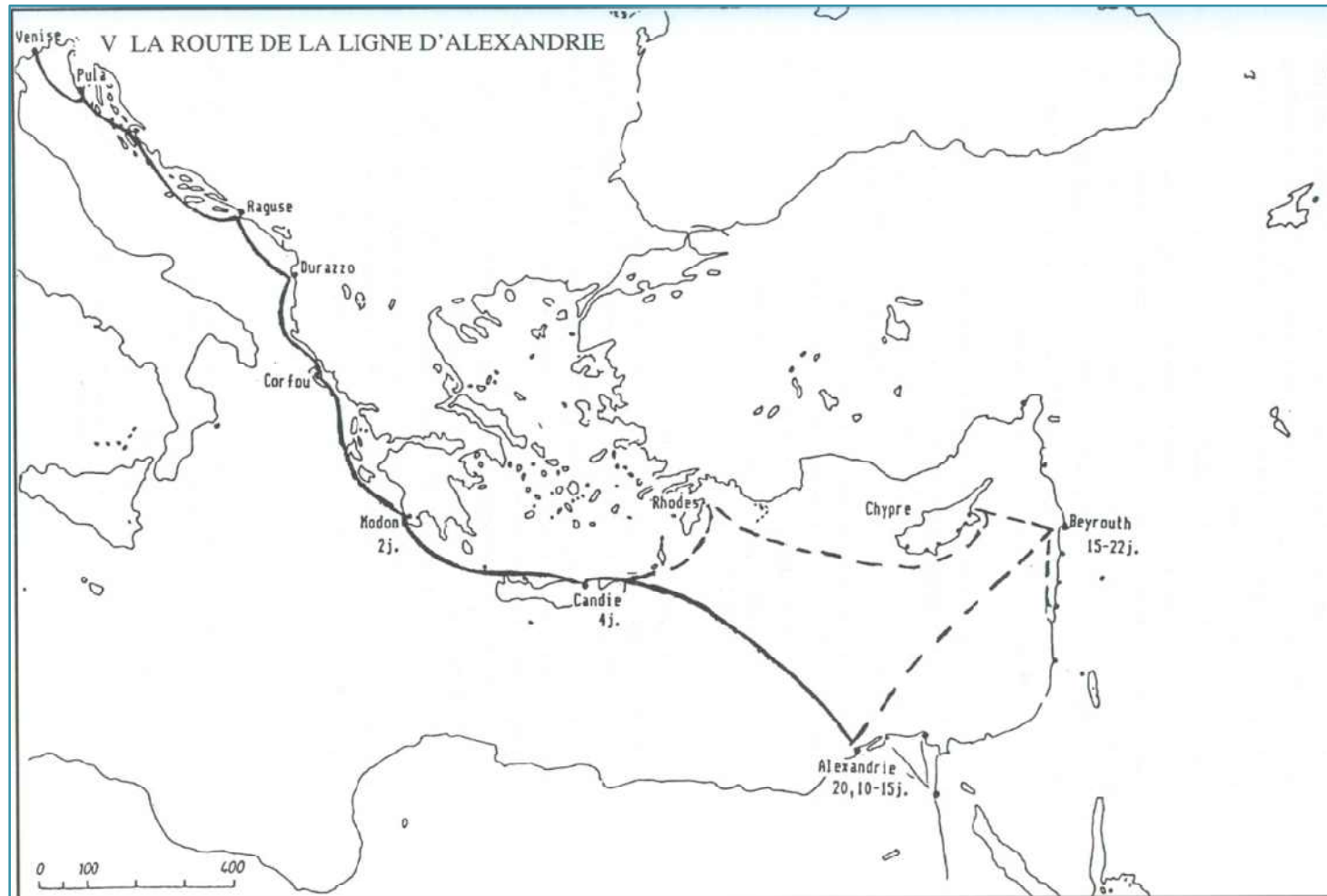


# La Contarin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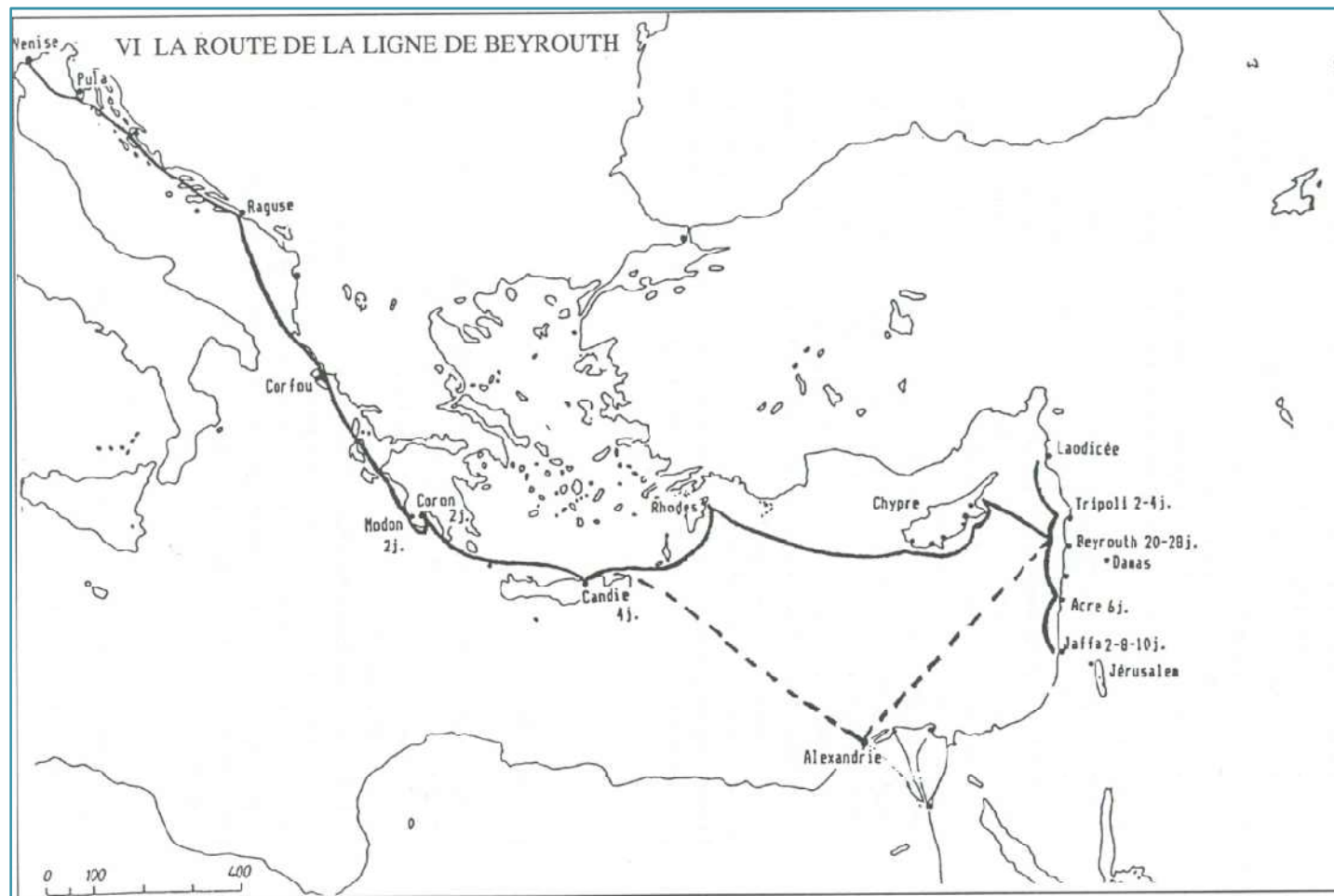




# 알렉산드리아 노선: 14세기 초 창설



# 베이루트 노선: 1374년 창설



# 1395년 향신료 선단의 운영 과정

- 5월 27일 원로원 결정: 베이루트 5척, 알렉산드리아 3척
- 선적 완료와 출항: 베이루트(8월 8일까지 선적, 8월 12일 출항), 알렉산드리아(8월 18일, 8월 22일)
- 알렉산드리아 노선의 운항시간표: 9월 2일 알렉산드리아 도착 - 10월 28일 출항 - 11월 30일 베네치아 귀환
- 현지 정박 기간: 베이루트(28일), 알렉산드리아(20일)
-

## 향신료 무역의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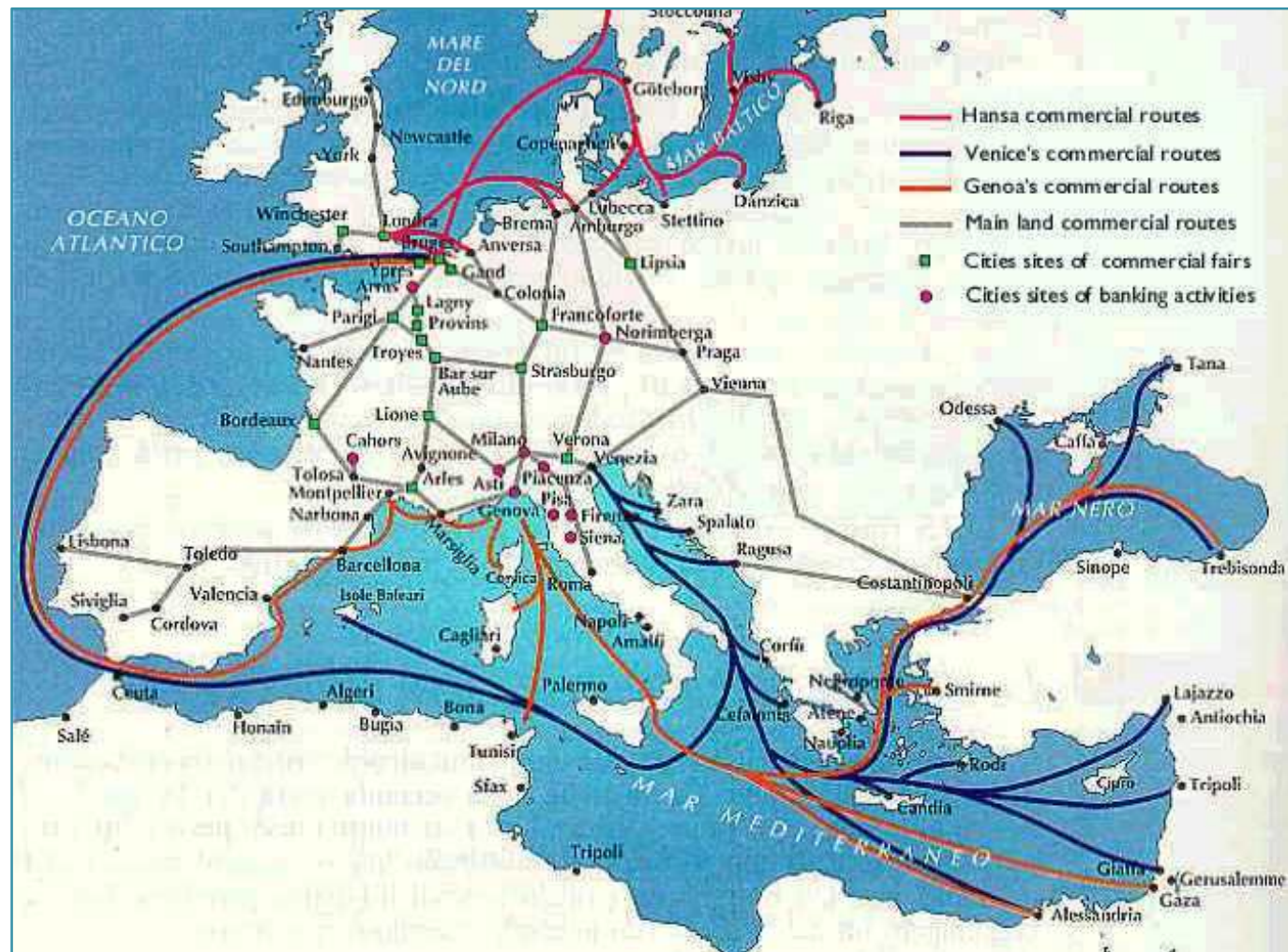
- 알렉산드리아 선적 화물: 후추 2100 스포르타(1폰도=약 180kg, 6만 3천 디나르, 70%), 생강 190 폰도(만 9천 디나르, 11,6%)
- 베이루트 선적 화물: 후추 1000 kintar(6만 디나르), 생강 323 kintar(64,600디나르)



## 향신료 구입 고객

- 토마소 모체니고 도제의 임종 연설:매년 30만 두카토 어치의 후추(3천 카리카=360,000kg), 8만 두카토 어치의 일반 생강(약60,000kg), 6만 4천 두카토 어치의 계피가 롬바르디아 지방으로 팔려나갔다.
- 롬바르디아 지방의 상인: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 상인을 지칭

# 중세 지중해 무역로



## 상품에 관한 기록

- 상업 편지
- 다티니 문서 1171번: Valute di mercanzie e carichi di navi
- 상업 안내서(La pratica della mercatura): 14세기 바르디 상사의 주재원 Francesco di Balducci Pegolotti
- 회계장부
- 공증인 문서

[illegible]



[illegible]

상인들의 편지



## 회계장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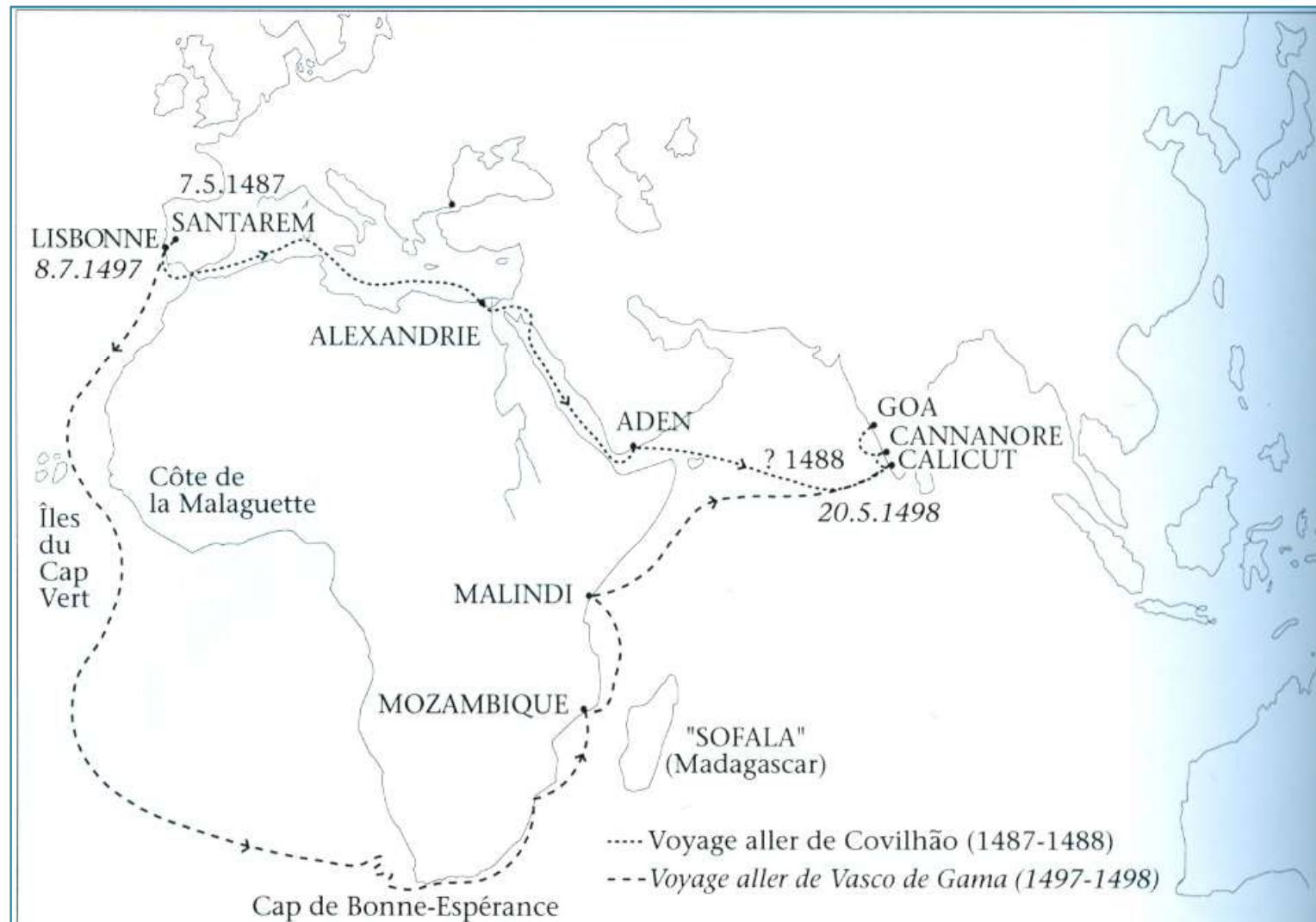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[illegible]





# 신항로의 개척과 향신료 무역



# 새로운 항로 개척





## 신항로 개척이 베네치아에 미친 영향

- Girolamo Priuli의 일기
- 1499년 8월 초 일기: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3척의 선박이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고 선장은 콜럼버스
- 만약 이것이가 사실이라면 이보다 베네치아의 명운에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.
- 신생아에게 엄마 젖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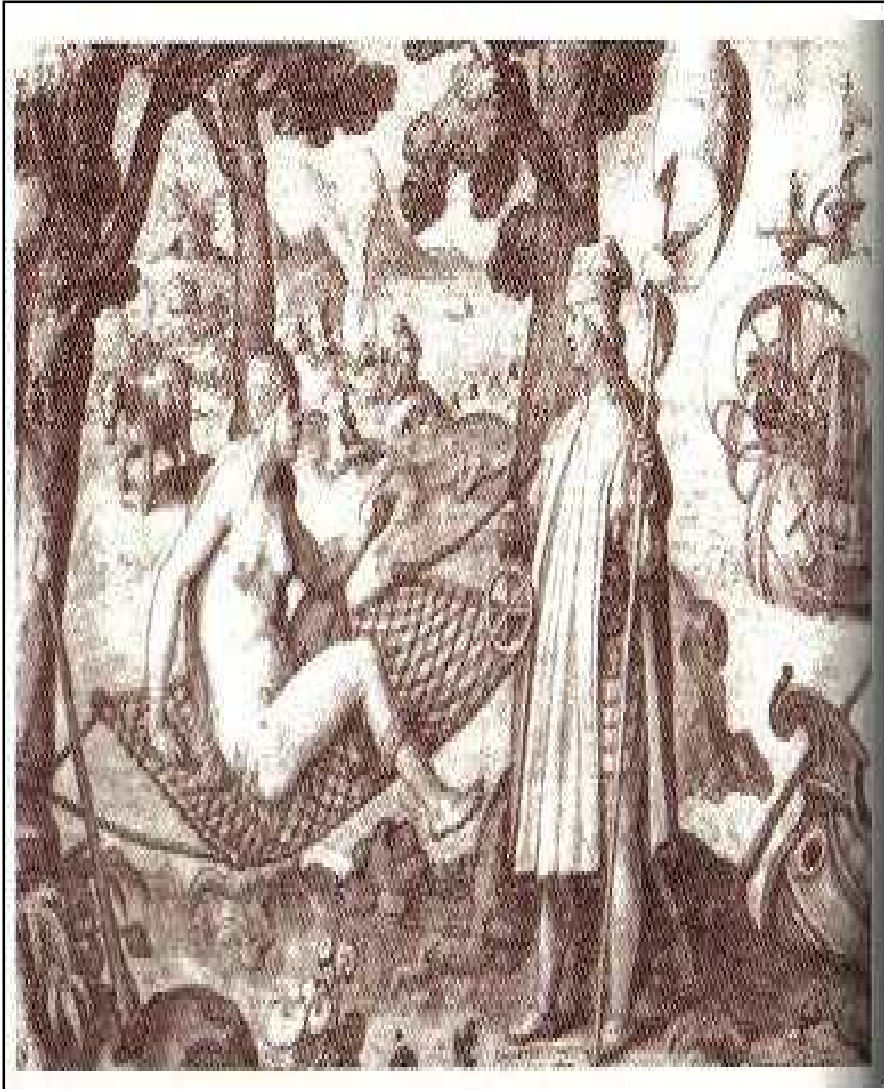
## 낙관적인 전망

- 말라바에서 포르투갈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
- 인도양은 장악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다
- 포르투갈 선단이 들어오는 향신료는 질이 낮다
- 맘루크 술탄이 포르투갈을 홍해로부터 몰아낼 것이다
- 궁극적으로 포르투갈 왕의 인도 항로와 선단은 망할 운명이라고 전망했다.

## 에필로그: 유럽이 만든 근대와 불행의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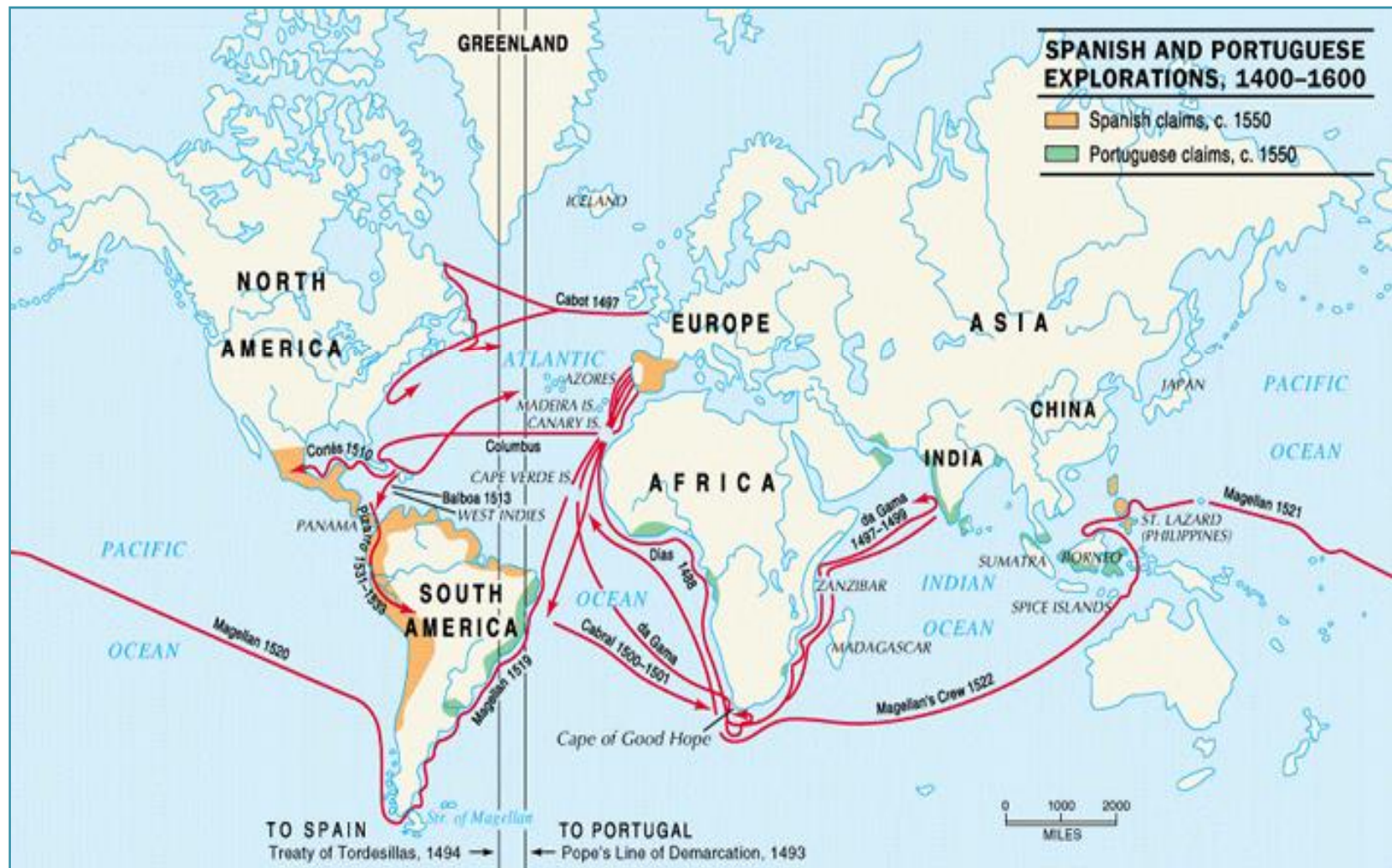
- 아메리카
- 토르데시야스 조약
- 병사한 아메리카
- 바야돌리드 논쟁

## 베스푸치



- 아메리카에 상륙한 아메리고 베스푸치(1454 - 1512).
- 피렌체의 항해가인 베스푸치는 에스파냐 왕실의 후원으로 대서양을 건너 오늘날의 브라질에 도달하였다. 그는 콜럼버스와는 달리 대서양 너머의 땅이 인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. ‘아메리카’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.

#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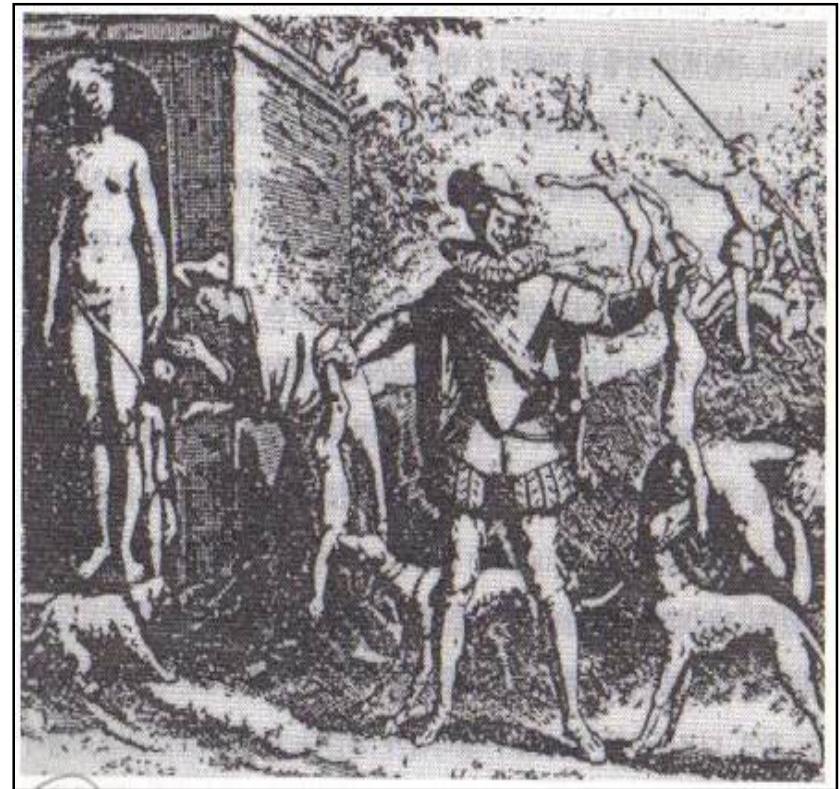






아타우알파의 군대가 카하마르카에서 피사로에게 학살당하고 있다.

# 스페인인들의 잔혹상



## 병사한 아메리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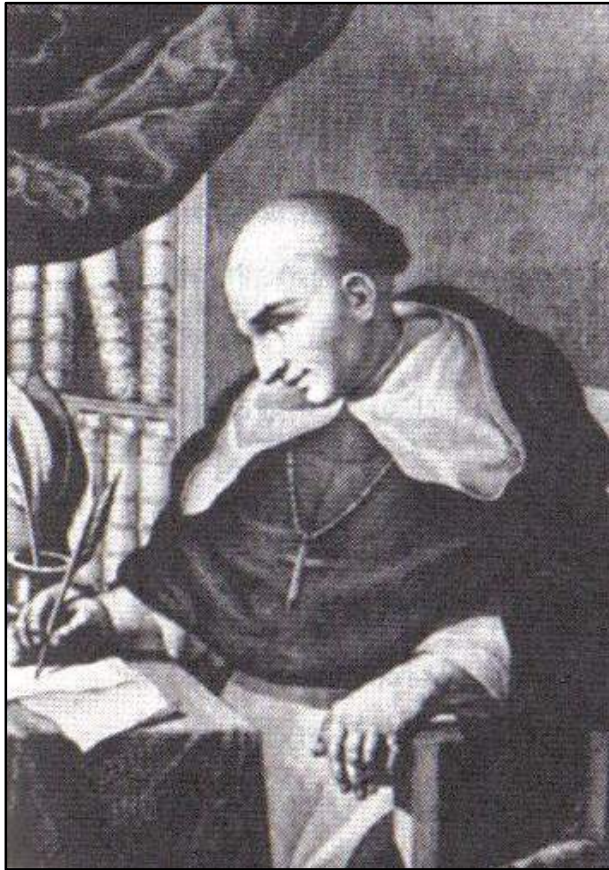
- 1518년부터 천연두 창궐
- 천연두, 홍역, 선페스트, 장티푸스, 성홍열, 콜레라, 백일해, 디프테리아, 이하선염, 볼거리, 발진티푸스, 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말라리아, 황열병
- 질병+폭행+살인+자살+기아+과로

## 바야돌리드 논쟁-세풀베다의 논리

- 사리분별, 덕성, 지혜, 인간성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,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처럼 인디오들은 당연히 스페인사람들보다 열등하다...인간의 이름 값을 못하는 이 야만인을 스페인 제국에 복종시켜서 그들을 문명인으로 개조시키고 악마에 빠진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어 진정한 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만큼 건전하고 적절한 방책이 달리 있단 말인가?



## 신대륙의 변호



-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(1474 - 1566)

"어떤 악마라 할지라도 스페인의 엔코미엔다 제도만큼 신대륙 전체를 그렇게 철저히 파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"

"인디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며 어느 누구도 인디오를 정복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"